



수백 명 아이들 '프랑'의 모험에 울고 웃었다

'프랑'의 탄생을 알리는 박사의 실험실 전경. 신이 되고싶은 과육이 괴물을 만들어 내는 장면이다.

<광주시립극단 제공>

광주시립극단 '안녕, 프랑켄슈타인' 공연 리뷰

지난 19일 광주예술의전당은 어느 때보다 문화피서를 즐기러 온 '가족단위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광주시립극단이 여름 방학을 겨냥해 무대에 올린 제21회 정기공연 '안녕, 프랑켄슈타인' (18~1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을 관람하기 위해 찾은 이들이다. 관객들은 역동적인 무대연출과 흥미로운 스토리에 탄성을 터뜨리며 무대위를 날렸다.

막이 오르자 박사의 실험실에서는 미디어아트로 재현된 기계 태엽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판타지물의 비현실 '비공정(非公正)'이 증기를 뿜으며 날아다닐 듯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스팀펌크(증기기관이 발달한 SF장르)와 디스토피아 세계관이 반짝 섞인 기묘한 세트에서 실험은 멈출 줄 몰랐다. 운무가 피어오르더니 피조물 '프랑'이 얼굴을 내비쳤다. 과기소설로 정평이 난 윌작(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의 아성으로 인해서인지 객석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한데 어딘가 이상하다. 공포물을 기대했다면 오산, 작중 '모찌(찰살떡)'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프랑은 사랑스러운 외관을 지녔다. 물론 공포에 대한 최후의 양심(?)으로 양옆 관자놀이에 대못은 박아 두었다.

수백 년 동안 외톨이로 지낸 프랑(이유진)은 성에 숨어든 사막여우(노희철)를 만난다. 프랑은 '양심'

과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 푸른 요정을, 사막여우는 백신을 찾기 위해 함께 노정에 오른다. 그러면서 환경운동가 윈터(이혜원)와 합류해 소중한 것을 지키러 협심하는 이야기.

작품은 '유쾌한 언더독'들의 반란처럼 다가왔다. 프랑은 괴물이라 치부되며 홀로 고성에서 200년을 지낼 만큼 소외된 존재였다. 백신이 든 가방을 훔쳐 도망 다니던 사막여우도 마찬가지, 환경운동을 하다 병약해진 윈터까지 셋은 소위 '주류'에 편승하지 못한 아웃사이더에 가까워 보였다. 그럼에도 통쾌하게 마녀 '카이만(정경아)'과 '뱀 일당(이명덕 등)'을 물리치는 과정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공연은 원작에서 취하고 있는 액자식 구조나 심리적 서스펜스, 고뇌하는 프랑(원작의 빅터)의 모습 등은 비교적 떨어졌다. 대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흥미 요소들을 도입했다. '카나리(정유정)'가 계단을 내려올 때 미디어아트로 꽃과 넝쿨을 비추는 모습, 프랑이 객석에서 짹짹 등장하는 장면, 이동식 모바일리티의 활용이나 마술, 춤과 노래 등이 바로 그것. 실감형이나 몰입형 콘텐츠가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체로운 무대요소들은 아이들이 공연에 집중하는 마중물이 됐다.

아울러 동물에 대한 은유는 숨겨진 감성 포인트. 기록하는 일을 사명으로 느끼는 '카나리'는 새, 프랑

역동적 무대·흥미로운 스토리 '탄성' 시대적 절망 극복개개는 '의지' 교훈

을 쫓는 '블랙맘바' 일당은 뱀의 이름(파이톤, 파인)에서 각기 본됐다. 또 악당 '카이만'은 악어의 종에서, 사막여우와 고퍼(쥐) 등도 모두 동물 이름에서 착안했는데 동물들이 위시하는 특성과 배역을 겹쳐 보게 했다.

포스트 코로나세대를 위한 '질병'이라는 소재도 시의적절이었다. 병명이 장궤한 시대적 절망을 극복하는 매개체 '백신' 뿐만 아니라 의지와 인간성이라는 점은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제시됐다.

이번 가족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말해주듯 객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거짓 없는 웃음은 공연 흥행의 정직한 가능자이기 때문이다. 이날 수백 명의 아이들은 프랑의 모험에 같이 울고 웃었다. 마치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무화시키는 '이머시브 공연'처럼, 아이들은 제3의 배우가 돼 자연스럽게 무대와 소통한 것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 낸 가족극이라도 자칫 유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날 공연 시작 전에 "너무 유치하면 어쩌지" 하는 못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어른들의 걱정'을 마뜩하게 만들 만큼 축제의 시간을 연출했다. 객석의 아이들은 '슈퍼올트라사이드'를 찾는 프랑의 이름을 끝까지 연호했다. /최류빈 기자 rubi@



음악단체 '라나뚜아'

빛과 음악...라나뚜아, 팝클래식 공연

케냐 팝송·브람스 콰르텟 등...23일 북구문화센터

빛의 삼원색은 혼합할수록 점차 흰색에 가까워진다. 뒤섞이면 점차 어두워질 것 같지만 빛은 스스로 개성을 지우면서 조화를 이룬다. 이같은 빛의 오묘한 철학적 이치를 음악과 접목시킨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목을 끈다.

음악단체 '라나뚜아'가 팝클래식공연 'primary colors'를 오는 23일(오후 7시 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다. 2023 북구 무대나눔 프로젝트 문화상생 수요 콘서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무대이다.

공연은 색이 표상하는 바를 음악을 매개로 은유한다. 먼저 오프닝에서는 '흰색'을 상징하는 케냐의 팝송 'Jambo Bwana'를 선보이는데, 제목은 "안녕하세요 손님!"이라는 현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편곡에 주의성.

이어 작곡은 '브람스 콰르텟 1 G단조 25번 4악장'을 통해 형상화한다. 브람스의 정열적인 실내악곡인 이 작품은 작곡가 내면의 열정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아내 붉은 색감과 어우러진다.

청색은 피아졸라의 곡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절 중 여름'으로 묘사된다. 이어 녹색은 베트남의 자그라이 족이 그들의 악기 '차베'를 위해 창작한 '차베의 꿈'을 통해 표현된다.

한편 빛의 혼합으로 만들어지는 색채도 선율에 담긴다. 적색과 청색을 섞어낸 '마젠타(핑크)'는 '거신의 오페라' 중 'It Ain't Necessarily So. from Porgy and Bess'에 녹아 있다. 또 발랄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환기하는 노란색은 녹색과 적색의 혼합인데, 모차르트의 '터키행진곡'으로 관객에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터키풍의 행진곡을 듣고 작곡한 작품으로 가벼운 느낌을 자아낸다.

공연의 대미는 이지수가 편곡한 '아리랑 팝소드'. 작품은 삼원색이 섞인 '순백'의 한국적 미를 통해 '음악적 조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람비 무료. 선착순 입장(250명).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물' 테마... '기후변화, 그리고 위기'

9월 1일~10월 3일 무등현대미술관...박기태·엄기준 7명 작가 참여

'물'을 테마로 환경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린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제10회 환경미술제 '기후변화, 그리고 위기'전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1전시실에서 연다.

지난 2013년 '보존이 미래다'를 주제로 시작된 환경미술제는 그동안 자연과 인간의 조화, 공생 등을 모티브로 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실천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올해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테마로 지역작가 박기태, 엄기준, 윤성필, 이유빈, 전정연, 조성숙, 조정태 7인이 참여한다.

박기태 작가의 '균형'은 나뭇가지와 물, 넝쿨 식물을 모티브로 표현한 작품이다. 자연계의 한 종(種)으로써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유기적 시각에서 돌아봤다.

엄기준 작가의 '버려진 것들'은 완도 금일도 해변에 버려진 부표 등을 업사이클해 과잉 생산과 소비를 비판하며 윤성필 작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 환

경이 달라진 동식물들이 함께하는 미래의 바다 풍경을 표현한다.

'섬'을 연상하고 있는 이유빈 작가는 유년기 다도해의 추억을 위안의 공간으로 개념화한다. 작가에게 섬과 바다는 자아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호흡의 공간으로 상징된다.

전정연 작가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물의 속성과 영향력을 조명화한다. 작가는 물은 순환하며 형상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형상기록'에 담아낸다.

조성숙 작가의 '사슴섬-검은 새의 아픔'은 푸른 물결의 사슴이나 상처받은 검은 새 한 마리의 눈물을 통해 상처받지 않을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정태 작가의 '포외의 바다'는 주황색의 불꽃이 튀는 듯 하늘과 짙은 남색의 바다를 대비시켜 울부짖는 자연의 분노를 상징화한다.

환경미술제 관계자는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7인 작가의 창작물들은 저마다 자연의 순환과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물'을 테마로



조성숙 작 '사슴섬-검은 새의 아픔'

한 작품전을 계기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방안 등이 다각도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대회'

21일~9월5일 선착순 접수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재 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박물관)은 '제34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박물관은 9월 18일(오후 2시) 박물관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9월 15일(오후 5시까지) 선착순 500명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전통 문화재를 감상, 재해석해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전남도 및 광주지역 초등학교생이면 가능하며,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행사-어린이 그리기 대회)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온라인 사전 접수 후 참여 가능하다. 대회 당일, 직접 준비한 재료(8절지와 물을 제외한 나머지)로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창의력과 묘사력, 표현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오는 10월 21일



제34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모습.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시상식과 함께 국립광주박물관 2층 다목적실에서 입상작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그리기 대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문화재에 관심있는 아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